

국가폭력 희생자의 기억과 기독교 교육 -임지현과 미로슬라브 볼프의 기억 논의를 중심으로

김옥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졸업

서론

지구상 최후의 분단국가로 200만에 가까운 병력이 휴전선에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신행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 함의를 지닐 것이다. 분단구조 하에서 흑백논리와 진영논리가 정당화되고, 적으로 지목된 대상에 대한 온갖 국가폭력행위가 조장되고, 묵인되고, 은폐되고, 강요되었다. 남한사회에서 분단과 이념대립으로 벌어진 가장 대표적인 국가폭력행위로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전후기간 동안 자행된 대규모 불법민간인학살과 민주화과정에서 발생한 학살, 고문, 실종, 의문사 사건들, 국가의 부작위와 그에 대한 책임회피, 진실규명 방해와 은폐로 이어진 4.16 세월호 참사들을 들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의 국가폭력은 해외로까지 확장되어 월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자행된 베트남 민간인학살로 이어졌다. 서북청년단으로 대표되는 기독교 세력의 학살을 포함한 잔학행위주도나 장준하, 전태일, 5.18 희생자들에 대한 교회장제거부, 기독교학교였던 고 박종철 열사의 모교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추모할 때도 억압 등의 사례에서 보이듯 한국의 주류 개신교회는 국가폭력의 동참자이거나 암묵적 동조자의 모습을 보여왔다. 교회를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교육도 국가폭력의 기억에 대한 이러한 경향을 따르고 있으며, 국가폭력희생자들은 기독교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 밖에서 기독교신앙을 재구성하도록 강요받아왔다.

임지현과 미로슬라브 볼프의 기억논의를 중심으로 남한에서 벌어진 국가폭력희생자들의 기억을 성경과 신학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기독교교육으로 통합될 수 있을지를 탐구하는 것이 이 논고의 목적이다. 다시 말해 남한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의 기억을 기독교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기억할지에 대한 탐구이다.¹⁾

본론

1.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책임과 기억

임지현은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잔학행위와 악행 주로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들을 고찰하면서 동양의 한자어 책임責任과 달리 책임responsibility이란 낱말로 대표되는 서구언어의 책임이란 단어가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response+able”이라는 뉘앙스를 가진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어원을 따져보면, 책임이라는 말 자체가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죽은 자의 목소리에 응답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자어에서 파생된 동아시아어의 ‘책임은 ‘잘못責을 떠맡는다任’는 의미가 강하지만, 유럽어의 ‘책임’은 ‘응답’의 의미가 강하다. 영어 responsibility나 프랑스어 responsabilite는 모두 응답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 더 직접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란 의미의 영어 answerability는 책임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누군가의 부름에 응답하는, 기억에 대한 책임이라는 뉘앙스가 강한 것이다.”²⁾

다시 말해 서구언어에서 책임이란 부름에 응답할 수 있음이며, 책임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기독교 신앙이해에 도입하면, 기독교적 책임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앙공동체와 신자 개개인이 응답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신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회중, 즉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에서 회중이나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에 의해 형성된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는 구약성경에서 회중이나 총회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할’을 번역한 말이다.³⁾ 히브리어 카할의 어원은 불러내다라는 뜻을 지니며, 그리스어 에클레시아에도 부르다를 뜻하는 칼레오가 들어가 있다. 신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뜻하는 두 단어가 모두 부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음에서 부르심과

1) 본 논문이 준비되고 있는 지금도 2010. 9. 22부터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는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의 유해발굴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골령골 민간인 학살은 한국전쟁기 가장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사건으로서, 대전 동구 낭월동 13번지 일원에서 7000 명의 보도연맹원들과 대전형무소 재소자가 법적 절차없이 학살, 매립된 사건이다. 2015년 첫 발굴과 2017년 시굴조사에 이어 학살 70주년인 올해 40일 간의 유해발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국가단위의 위령시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 임지현, 기억전쟁-가해자는 어떻게 희생자가 되었는가?, Humanist(서울:2020), p. 13

3) 에드먼드 클라우니, 황영철 역, 교회, IVP(서울:1998), p. 30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주제가 교회의 정체성에 있어 근본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회중을 부르시는 야웨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 사람들이 받는 압제와 부당한 일들을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점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대목에서 분명히 드러난다.⁴⁾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통과 억압,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기억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기억 위에 기초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야웨 하나님의 부르심은 압제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부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기억과 응답이라는 요소가 드러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총회됨, 카할됨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에 묘사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스라엘이 무리로 나아온 사건이었다. 하나님의 카할로서 이스라엘이 나아온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기억을 말씀하신다.⁵⁾ 하나님은 당신이 불러내신 사람들이 당한 고통과 억압을 기억하시고-“종살이하던 집에서”, 응답하셔서 불러내시고 해방하신 분이심을 단언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한 사람의 기억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모인 무리로서의 하나님의 카할은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성경의 핵심적 주제 중 하나인 언약과 기억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 간에 맺어지는 언약에는 위에서 살펴보았듯 하나님의 충실한 기억이란 요소가 자리잡고 있다. 하나님의 충실한 기억은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들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기억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충실히 기억해야 함을 언약의 기초로 삼게 된다. 언약과 기억의 관계는 하나님의 기억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이며,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충실한 기억에 대한 사람들의 충실한 기억이라는 점에서 충실함에 대해 요구되는 충실함이라고 할 수 있다. 임지현이 소개한 서구언어의 책임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보여주는 응답하는 능력으로서의 책임이라는 의미를 적용해보면, 언약이란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책임에 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이 맺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교회된 사람들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4)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이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새번역 성경전서 출애굽기 3:4)

5)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새번역 출애굽기 20:2)

하나님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억눌리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내지르는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사람을 부르신다.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말한다.⁶⁾ “비록 아웨가 최고의 치료자이긴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웨께서 의도하신 치료는 인간 중개자들에 의해서 실행된다는 점이다.” 또한 아웨의 치료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치료가 진실말하기에서 시작되며, 하나님의 치료는 진실말하기를 요구한다는 점이다.⁷⁾ 월터 브루그만은 거짓과 부인이 있는 곳에는 치료가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한다.⁸⁾ 하나님의 의사-치료자 이미지에서 하나님은 치료를 위해 인간중개자를 부르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게 하심으로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이와 같은 구약성경신학의 내용은 기억과 치유 사이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 점은 본 논고에서 이후에 전개될 논의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구약성경의 윤리를 특징짓는 주변부, 국외자, 소수자, 약자에 대한 보호 규정들이 하나님의 기억과 고통에 대한 응답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해방사건에 대한 언약백성의 기억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도 깊이 천착할 점이다. 이 점은 하나님의 충실한 기억 속에서 부르심을 받고, 해방받은 하나님의 카할이 하나님께 대한 충실한 기억으로 삶의 규범을 삼아야 함을 뜻한다. 즉 규범과 윤리란 기억에 대한 기억, 응답에 대한 응답, 책임에 대한 책임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쉬운 연약성을 가진 이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 권리옹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카할,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연유하게 된다.

정리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불의와 불공정, 억압과 부당함에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권리를 구속-되물려주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책임을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면, 기독교적 책임이란 폭력에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응답하는 능력이 된다. 여기서 폭력희생자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응답할 수 있음이란,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그리스도인 각자가 폭력희생자들의 학대받은 기억에 주목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연대하는 책임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실천적 함의를 지님을 뜻한다. 그리스도인

6) 월터 브루그만, 류호준·류호영 역, 구약신학, CLC(서울:2003), p. 420

7) 위의 책, p. 418

8) 위의 책, p. 418

과 기독교회는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에 책임있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충실한 기억과 응답이라는 신앙 속에서 폭력의 희생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고통을 충실히 기억하고, 그 고통에 충실하게 응답하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

응답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책임개념으로 살펴 본 이상이 기억에 대한 신학적 논의는 특별히 국가폭력희생자의 기억을 기독교 교육 안으로 통합하는 작업의 근거가 된다. 폭력과 과거사와 책임에 대해 가해자이며 동시에 피해자로서 복잡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동아시아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개신교회도 국가폭력에 대한 응답을 요구받고 있고, 지금까지의 반응방식에 대한 성찰을 필요로 하며, 책임있는 동시대의 한 주체로서 사회 안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 올바른 기억을 통해 동아시아의 역사에 대해 책임있게 응답할 수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선교의제, 기독교교육의 일 목표라고 생각한다. 대규모의 자행된 한국의 국가폭력희생자들의 기억을 기독교교육 안으로 통합하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기억하는 방법을 기독교가정과 기독교회, 기독교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교육 안으로 통합시켜야 한다.

2. 미로슬라브 볼프가 말하는 기독교적 기억

미로슬라브 볼프는 인종청소와 종족갈등, 내전으로 점철된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 출신 신학자로서, 스스로의 학대받은 경험과 관련된 자전적 저서 <기억의 종말>에서 폭력희생자들의 기억을 기독교신앙과 신학이 어떻게 만나야 할지를 논한다. 볼프는 이신칭의라는 구원론, 최후의 심판과 같은 종말론의 가르침이 폭력희생자들의 기억을 기억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억을 놓아 보내는 과정을 제안한다. 용서의 이름으로 일방적 일상복귀라는 명목의 망각이 폭력희생자들에게 선불리 강요되는 오해와 오용이 만연한 한국 상황에 대해 볼프의 자전적이며, 신학적인 기억논의는 매우 의미있는 자료이다. 미로슬라브 볼프의 기억논의는 기독교교육 현장에서 기독교의 구원, 이신칭의, 용서, 화해가 어떻게 한국의 국가폭력희생자들의 기억과 연결지어 교육될지에 대해서 좋은 통찰을 준다.

볼프의 논의는 상처받은 기억을 기억하고, 그것에 연대해 함께 기억하고, 폭로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일이 대세가 된 상황 속에서 기억이 전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며, 지배적 기억담론과

맞부닥칠 위험을 감수하면서 분명한 기억을 전제로 용서와 화해 그리고 기억을 놓아보내는 망각을 제안한다. 바로 이 점이 볼프의 신학적 기억논의가 일반적 주류 기억논의와 다른 점이며, 기독교교육이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사회의 기억논의에 새로운 균형점과 화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본다. 볼프의 기억논의가 가지는 이러한 차이점의 기반은 당연히 성경과 신학자료들이다.

2-1. 국가폭력희생자의 기억과 기독교 구원론

미로슬라브 볼프는 자신이 경험한 국가폭력과 관련하여 기억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억을 놓아 보내는 과정을 위한 신학적 기초로서 이신칭의와 용서, 화해 등 구원론적 주제들을 분석한다. 볼프가 국가폭력희생자의 기억과 구원론을 연결시키는 것은 성경과 개신교 신학에서 강조하는 이신칭의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내는 새로운 자아정체성에 기초하고 다. 볼프는 마르틴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언급을 인용하며 논의를 전개한다.⁹⁾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 안에서 산다.” 마르틴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따르면 그리스도인됨은 이주를 뜻하며,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이 아니라 자기 바깥에 산다. 즉 하나님 안에 살고, 이웃 안에서 산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또는 “들려 벗어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우리를 만들지도 파괴하지도 못한다. 우리 정체성의 핵심은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나 타인들이 우리 영혼과 몸에 새긴 것은 흔적을 남기고, 우리다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지는 못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들려 벗어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인간의 참된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이신칭의의 가르침은 폭력희생자들의 기억에도 적용된다. 다시 말해 가해자들의 행위가 폭력희생자들의 정체성을 만들지도, 규정하지도, 지배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참된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만이 인간정체성의 참된 동인이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사람이 한 일이 자신을 규정하지 못함을 믿고,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피해자가 한 일이 자아정체성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두고 볼프는 다음과 같이

9) 미로슬라브 볼프, *홍종락 역, 기억의 종말*(서울:2016), pp 271-272

말한다. “하나님의 현존과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들려 벗어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¹⁰⁾

미로슬라브 볼프의 이 신학적 진술은 언뜻 수긍하기가 어렵고, 의문을 자아내며, 엄청난 국가폭력을 당하여 헤아릴 수 없는 상실과 비탄과 슬픔을 경험한 희생자들에게 제안하기가 주저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과 신학전통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자기정체성 규명에 대한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복음적 신앙의 현대적 적용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의 행위가 우리 자신을 형성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참된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신앙이 폭력희생자들에게 행해지고 가해진 악행에 대한 명확한 기억작업과 더불어 함께 교육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 기억을 통해, 그 기억 안에서, 그 기억과 함께 용서하고 화해하고 떠나보낼 수 있는 단계를 밟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기억과 관련된 교육에서 이신칭의에 의거한 기억이라는 이 지점은 기독교교육이 독보적으로 선취하여 사회와 역사의 기억논의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지배적으로 형성하고, 규정할 수 있다는 이신칭의적 강조점은 국가폭력이라는 사회구조적 죄가 마성을 드러내고, 거대한 악이 시대와 사회를 지배할 때 흔히 나타나는 거짓되고 상투적인 미봉책의 기만성을 드러내고 경계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이 한 일이 나를 규정할 수 없다는 믿음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부여받고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은 악행의 주체를 희석화하거나 책임소재를 흐리거나 악행을 하나님의 뜻으로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신정론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라는 식의 발언이 설교강단에서 나오는 것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상해를 주는 참으로 몰상식한 행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¹¹⁾

미로슬라브 볼프는 마르틴 루터의 기억논의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10) 위의 책, p. 272

11) 이 논문이 준비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마지막 기회라며,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국회 국민청원에 필요한 10만 명의 참여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은 2010. 10. 6부터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릴레이 금식기도를 이어오고 있다.

루터와 다르게 오늘날은 과거의 일부를 상실하면 자아가 쪼그라든 것처럼 느낀다 ... 동일성에 관한 이런 견해는 ‘나는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내가 기억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루터에 따르면, 상황은 정반대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무한한 신비 속에 머무는 존재였던 자아가 자신의 과거 경험을 담는 그릇 정도로 오그라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채움을 얻고 보호받고 기쁨을 누리는 자아는 자기 자신과, 불의를 당한 기억과, 거기서 생겨난 죄책감을 놓아 보낼 수 있다. 이런 자아는 하나님 안에만 마냥 머물지 않는다.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아라면 사랑으로 이웃 안에 있기도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자아는 이웃을 대할 때, 그리스도처럼 행동한다.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포용한 무기억은 상실이 아니라 과거가 비가역성이라는 철권을 휘둘러 행사하는 독재로부터의 자유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가져가시지 않으며, 모아진 조각들, 재구성한 이야기들, 참으로 구속된 자아들, 영원히 화해한 사람들로 바꾸어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¹²⁾

은혜에 의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폭력희생자들 안에서 형성하는 새로운 정체성과 그 새로운 정체성이 확대받은 기억에 대해 가지는 힘과 영향에 대한 미로슬라브 볼프의 서술은 반복된다.

괴테의 <파우스트> 속 마가레타가 마가레타인 것은 파우스트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헌신과 그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때문이다. 하나님을 우리 존재와 정체성의 근원으로 믿으며 그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과도한 애착을 갖지 않게 된다. 하나님 안에 자리를 잡으면, 과거의 어떤 사건을 잊어도 존재하기를 그치지 일은 없게 된다. 에버하르트 융엘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일 것이다.¹³⁾”

하나님은 먼저 죄를 짊어지는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완전한 거처로 만들어진 새 자아를 마가레타 안에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파우스트에게 용서와 무기억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전달할 것이다.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자아를 발견했으니,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통해 행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번성할 것이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지난 상처를 놓아 보낼 것이다.¹⁴⁾

2-2. 국가폭력희생자의 기억과 기독교종말론

12) 미로슬라브 볼프, *홍종락 역, 기억의 종말*, IVP(서울:2016), pp. 273~275

13) 위의 책, p. 277

14) 위의 책, P. 286

미로슬라브 볼프가 제안하는 기독교적 기억의 마지막 단계인 망각은 종말론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현재적 적용점을 지니는 것이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학살과 전쟁범죄, 국가폭력으로 얼룩진 20세기의 과거사를 회피하거나 심지어 왜곡하지 않고, 기독교교육으로 통합시키려 할 때, 기독교교육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에게 주시려고 하시고, 믿는 이들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 구원이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을 마지막에 어떻게 완성하실지를 다루는 종말론의 영역이 국가폭력희생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종말론과 기억 사이의 관계에 대해 볼프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종말론적 이행이 이루어진 후,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이 파괴될 수 없는 세상에 들어간 후, 최후의 심판 이후, 사람들이 저지르고 겪은 악행이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 아래 공개적으로 드러난 후, 가해자들의 죄가 지적받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풀어진 후, 그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하나의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알아본 후, 이 모든 일이 벌어진 후에는 악행을 당한 기억을 잊게 될 것이다.¹⁵⁾

미로슬라브 볼프는 가해자들의 악행으로 고통받고 상처를 입은 폭력희생자들의 기억을 논하면서 기독교가 믿고 가르치는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언급한다.¹⁶⁾ 볼프에게 있어서 최후의 심판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해설된다.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볼프는 전망한다.

(최후의) 심판은 악행과 짐으로 망가진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의 세계로 넘어가는 통로이다. 최후의 심판은 은혜의 심판이다. 심판에서 은혜가 실현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죄가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하고, 죄인들이 죄책을 벗고 변화되어야 한다.¹⁷⁾

볼프는 선부른 용서나 망각, 일상으로의 복귀, 심지어 책임소재의 회석 등이 기독교신앙의 해석에 끼어들 자리를 배제하면서도 하나님이 가져다주실 종말의 희망을 완전한 사랑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의 세계로 넘어가려면 은혜의 심판과 최종적 상호포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¹⁸⁾ 기독교교육의 현장에서 최후의 심판을 포함한 종말론이

15) 위의 책, p. 278

16) 위의 책, p. 243

17) 위의 책, P. 244

이렇게 희망과 완전한 사랑의 새로운 세상과 인류사회, 하나님의 변영으로 충만해진 생태계로 가르쳐지고, 이러한 종말론적 전망이 우리가 고민하고, 아직도 논란 중에 있는 술한 국가폭력의 가해사건들과 희생자들의 기억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가 다루어질 때 기독교는 시대역행성의 오명에서 한 걸음 더 벗어나 책임적 존재로 사회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으리라고 전망한다. 시대의 절망이 짙이고, 미래의 희망이 청년들에게 제시되지 못할 때마다 상습적으로 한국사회에 등장해 교회와 사회를 어지럽히고, 기독교의 신뢰도에 타격을 주는 불건전한 기독교계 종말론 운동이나 사이버 종말론 집단 등의 폐해를 최근에도 지켜본 한국개신교회로서는 건강하고, 온전한 기독교 종말론의 의미를 교육해야 할 필요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논쟁적인 주제인 악행당한 사실의 망각, 즉 기억의 내어놓음을 논하면서도 현실적 긴장을 놓치지 않는다.

최후의 심판을 포함해서 보다 공적인 심판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기억이 바로 심판이다 ...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용서와 화해를 추구할 것이다. 여기에는 순서가 있다. 기억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억을 놓아 보내는 순이다. 용서조차 일방적 행위가 아니며, 기억을 놓아보냄은 더 상호성이 강하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악행을 기억해야 할 의무는 유효하다. 기억은 정의에 봉사하고, 기억과 정의는 화해에 봉사하기 때문이다.¹⁹⁾

정리하면 이상에서 <기억의 종말>에 나타난 미로슬라브 볼프의 기억논의를 다루면서, 나는 볼프가 기억과 관련하여 거론하는 기독교 구원론과 종말론의 요소가 한국의 국가폭력희생자의 기억과 관련하여 기독교교육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절에서는 어떻게 이런 내용을 기독교교육에서 가르칠 수 있을지를 교리문답과 성찬례라는 두 방편과 관련하여 다룬다.

3. 교리문답과 성찬례를 통한 기억의 기독교 교육

나는 기독교교육의 현장에서 국가폭력희생자들의 기억을 교리문답과 성찬례의 실행이라는 두 범주 안에 받아들여 신앙과 통합하여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 교리문답은 기독교신앙에의 입문과정 특별히 세례/침례교육과 관련하여, 또한 기독교교육의 재교육과 평생교육에 있어

18) 위의 책, P. 247

19) 위의 책, p. 280

주요한 교육적 방편으로서 언제나 중요성을 지녀왔다. 또한 교리문답은 성례전 참여와 이해를 위한 기초단계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교리문답과 성찬례는 연계성과 상보성을 지니기도 한다.

3-1. 교리문답을 통한 기억의 기독교 교육

억울한 이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론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하는 카할qahal공동체/에클레시아공동체로서의 책임적 교회론, 이신칭의와 기억의 관계에 대한 구원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춤추며 기억을 놓아보내게 되는 내세와 최후심판과 희생자의 기억의 관계를 다루는 종말론과 관련된 교리적용을 담은 국가폭력희생자의 기억에 대응하는 교리문답의 개발이 필요하다. 신앙의 개조 또는 신조와 신앙고백들의 각 항목이나 주제들이 국가폭력희생자의 기억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와 실천적 적용들을 다루는 해설이 개발되어 기독교교육 현장에서 사용된다면, 그리스도인 가정의 학생들이 학교교육현장과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한국 현대사의 국가폭력사건들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한국의 국가폭력희생자의 기억에 초점을 맞춘 한국교회의 교리문답을 개발하여, 기독교교육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첫 부분과 <바르멘 신학선언>의 두 신앙고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첫 주일은 1문과 2문으로 구성되는데, 1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문 :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또한 나로 영생을 확신하게 해 주시고, 나로 진심으로 자원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교리문답의 시작을 ‘위로’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접근방식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방식이라기 보다 아래로부터 즉 고통하고, 신음하고, 눈물짓는 인간적 삶에서 시작하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하나님 이해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따뜻하고 인간적인 공감의 방식으로 교리가 질술되고, 신앙이 이해되고,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짐을 뜻한

다. 격동하는 동아시아의 지난 150년 역사 속에서 요동치면서 인간생명의 존엄성이 슬하계 짓밟혀온 한국의 지난 역사에서 한국개신교회는 여러 입장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개신교회가 이제는 위로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를 위해 위로의 전달자들을 양성할 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취하고 있는 연민과 공감의 방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교리문답을 개발하기를 희망한다. 특별히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거둬진 망언과 몰상식으로 공분과 비판의 초점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 유가족들이 탈교회화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한국개신교회의 신앙이해가 국가폭력희생자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함이 드러났다고 본다.

국가폭력희생자의 기억을 반영한 교리문답의 개발에 있어서 참고하기를 제안하는 두 번째자료인 <바르멘 신학선언>은 해외 개혁신교회 예배에서 신앙고백 순서에 사용되기도 한다. <바르멘 신학선언>은 나치의 국가사회주의에 순응하던 독일국가교회-독일교회총회에 맞서서 형성된 독일고백교회가 1934년에 발표한 신앙고백이다. <바르멘 신학선언>은 유대인학살을 정당화하는 신학적 근거를 제공하던 독일국가교회에 대하여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개신교 신앙과 신학에 따라 날카롭게 시대상황에 반응하였다는 점에서 이 논의에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닌다. <바르멘 신학선언>의 서언부분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다.

우리는 교회를 황폐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독일개신교의 통일성을 파괴하는 독일적 그리스도인들과 현재의 제국교회정부의 오류들에 직면하여 다음과 같은 개신교의 진리를 고백한다:

1.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 14,6)."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요한 10,1,9).

성서에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가 생사를 걸고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외에 선포의 근원으로서 또 다른 사건들과 권력들, 인물들과 진리들을 하나님의 계시로서 승인할 수 있고, 있어야 한다는 왜곡된 가르침을 배격한다²⁰⁾.

20) 손규태 역

연구자에 따라서는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방공간과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학살 국가폭력사건에서 공산박해의 희생자와 피해자로서의 기억과 경험에서 비롯되는 혐오와 원한을 가지고, 국가폭력의 가해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한국개신교회의 현실에서 <바르멘 신학선언>과 같이 시대상황을 인식하고,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기를 거부하는 방식의 신앙고백과 이러한 신앙고백을 따라 작성된 교리문답은 교회의 역사적 자리를 재설정하고, 역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재정향, 수행하게 되는데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3-2. 성찬례를 통한 기억의 기독교 교육

히브리인의 출애굽경험을 기억하는 유월절 식사와 깊은 연관 속에 있는 기독교 성찬례는 그 자체가 기억의 의례로서, 많은 경우에 성찬기도 혹은 대감사기도 안에 제정의 말씀 Institution과 기억Anamnesis이라는 직접적 기억기제를 포함하고 있다. 성찬례 안의 이 두 기억기제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기억과 함께, 통하여, 안에서 국가폭력희생자의 기억은 기억되고, 치유되고, 수렴될 수 있다. 이 사실은 성찬례라는 기독교 성례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국가폭력희생자들의 기억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의 전거를 마련해주게 된다.

성찬례 안에서 국가폭력희생자의 기억을 기억하고, 수렴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연대solidarity의 성격에서 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폭력희생자들과 하나님을 동일화하게 하는 구원사건이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몰트만의 십자가 해석을 그의 책 <배제와 포용>에서 이렇게 재인용한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은 단지 그분의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고통으로, 예수님은 그들과 연대하시며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을 통해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자신의 수난을 통해 이 세상의 수난의 역사 안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와, 신적 정의와, 생명을 창조하는 의가 들어오게 하신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폭력의 희생자들과 동일화하시는" 동시에 "희생자들은 하나님과" 동일화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분보다 더불어 그들이 빼앗겼던 권리를 누리게 하신다."²¹⁾

21) 미로슬라브 볼프,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IVP(서울:2012), p. 33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몰트만이 한 십자가 해석을 인용하고 논평한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며 그의 유기의 외침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이해하게 되는가? 우리가 거기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 속에서, 버림받은 인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²²⁾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 무덤을 기억하는 성찬례 안에서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 안에서 동일화하신 폭력희생자들을 또한 기억하게 된다. 성찬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폭력희생자들을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해야만 한다. 성례전이 가지는 기독교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생각할 때, 성찬례 안에서 국가폭력희생자들의 기억을 수렴하고 기억하는 일은 매우 기독교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성찬례는 기독교교육이 기억의 교육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수위의 교육방편이다.²³⁾

특히 마르틴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을 따르는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찬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에서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아뵈울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장이 된다. 몰트만이 “교회 안 십자가 상징은 제단의 두 촛대 사이의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밖의 버림받은 자의 처소인 해골이라는 곳에서 두 도적의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십자가의 신학을 계승한 십자가 해석을 내리듯, 십자가와 빈 무덤의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례에 참여하는 기독교교육의 학생들은 본회퍼가 말하는 아래로부터의 관점을 배우게 된다. 아래로부터의 관점이란 배제당한 이들, 학대받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계를 볼 줄 알게 되는 것이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계승하면서, “아래로부터의 관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아래로부터의 관점, 이른바 배제당한 사람들, 피의자들, 학대받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요컨대 고난 겪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계사의 큼직한 사건들을 볼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비할 데 없이 값진 경험이다. 이 시대에 빈정거림

22) 존 스토트, 정옥배 역, 그리스도의 십자가, IVP(서울:1998), p. 271

23) 예배 신학자 제임스 화이트는 그의 책 <성례전 하나님의 자기주심의 선물>(WPA)에서 성례전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 한 장을 할애해 길게 논의한다.

과 질투가 마음을 괴롭히지만 앓는다면, 우리는 위대한 것과 하찮은 것, 행복과 불행, 강함과 약함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고, 고귀함과 인간다움과 옳음과 자비를 보는 우리의 관점도 더 분명하고, 더 자유롭고, 더 확고해질 것이다.²⁴⁾

특별히 성찬례는 종말에 이루어질 역사의 갱신, 만물의 해방을 선취하고, 선침하는 종말론적 희망의 성례전으로서 앞서 미로슬라브 볼프가 말하는 기억과 관련된 기독교 종말론의 전망을 실체화하여, 미리 맛보는 장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우주적 변모 안에서 모든 억울함이 신원되고, 눈물이 씻겨지며, 명예가 회복될 종말론적 전망에 참여하는 성례전인 성찬례 안에서 국가폭력희생자의 기억은 수렴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의 성례전으로서의 성찬례 안에 한국개신교회가 국가폭력희생자들의 기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정치적 격동을 겪으면서 희생된 사망자들을 기억하는 순서를 담고 있는 “엘살바도르 난민들의 성찬기도”가 한 가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²⁵⁾

24) 디트리히 본회퍼, 김순현 역, 옥중서신-저항과 복종, 복있는 사람(서울:2018), pp. 51

25)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역사의 유일한 주님이신 거룩한 아버지, 항상 순례하는 이들의 하느님,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영원히 정착하지 못하는 이들의 하느님, 우리는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에게 집과 땅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롯에게 목숨을 건지려면 산꼭대기로 도망가라고 하셨습니다. 형의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라반의 집에 도망가 있으라고 야곱에게 명하셨습니다. 당신은 모세에게 미디안으로 피해 있으라 하셨습니다. 억압받는 형제를 구해준 모세를 이집트인들이 잡으려고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백성들은 누룩없는 빵과 모든 소유물은 옷 속에 집어넣고 살붙이는 어깨 위에 올려 놓은 채, 당신은 그들을 노예살이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당신과 그들과 함께 여정을 떠났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진영 한 가운데 천막에서, 사막의 피난처에서 그들 가까이 있고자 하셨습니다. 당신은 약속하신 땅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친구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당신은 재판 이외의 개인적 복수로부터 당신의 백성이 피하기 위한 피난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아돌란의 동굴로 피신하였으며 타락한 왕국에서 갈 곳이 없었던 모든 억압받고 불행한 이들과 어울렸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의 삶도 이와 같았습니다. 마치도 개인적 차원의 출애굽처럼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가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는 그분을 저녁식사에서 기억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순례자요 유랑민이었습니다. 믿음이 깊은 마리아,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그분은 그리스도교 역사상 최초의 피난민이었습니다. 그분은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태어나셨으며, 가난하게 홀로, 아직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린 채 불의한 체제에 쫓기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분은 고향에서 추방되었으며 가난한 이들이 항상 그분을 따랐습니다.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불의한 재판과 처형, 그리고 마침내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기준 질서에반역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시저만을 왕으로 섬기고 하느님이 아니라 성전과 율법을 섬겼던 시대에. 그렇지만, 그분은 마지막 식사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빵을 들고 축복하신 후 떼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다시 잔을 들고 당신께 감사드리니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니라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 그분이 죽으신 후 그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숨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피난처인 예루살렘의 어떤 집에 그렇지만 바로 그곳에서, 두려움과 고독 속에서 성령의 기적이, 교회와 그 사명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은 마리아와 함께 신앙으로 일치되어 있는 이 피난민들 속에

결론

임지현과 미로슬로브 볼프의 기억논의를 중심으로 국가폭력희생자들의 기억을 어떻게 기독교교육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 온 본 논문은 국가폭력희생자들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께 대한 책임적 응답이며, 기독교 구원론과 종말론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계신 구원의 전망이 한국 국가폭력희생자의 기억에 대하여 적실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밝혀보았다. 이와 같은 신학적 통찰을 기독교교육의 현장에서 적용할 방편으로는 국가폭력희생자의 기억에 터한 교리문답과 성찬례를 제안하고, 참고자료를 제시했다. 기독교세계관운동과 기독교철학에서 적지않은 위치를 지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약함으로부터 강함이, 은총이 넘치게 흘렀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사회의 모든 것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창조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박해 당하고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분의 해방의 메시지가 우리들께까지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교회의 지체인 이곳에 산살바도르의 빈민촌에, 천막촌에, 지하실에 우리는 당신 아들의 성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국에서 불안에 떨며 당신의 말씀에 충신했다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희생자나 성인들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한 죄인들입니다. 당신의 용서와 성령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절망감으로서는 우리의 몫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혜택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곳이 우리가 살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들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지상의 왕국은 새롭게 변혁될 것이며 우리는 성령과 함께 당신을 향하여 당시의 집으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풍요로울 것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수많은 우리들의 형제자매들처럼.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기)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고통을 알고 계신 당신,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분, 약속하신 바를 채워주실 분. 젖과 우유가 강물처럼 넘쳐흐를 약속의 땅, 그곳에서 당신의 새로운 이스라엘은 영원한 피난처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와 평화 속에. 옥수수와 사탕수수의 들밭 한가운데에서 살 것입니다. 당신의 도우심으로 정의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그곳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당신께서 선포하셨던 곳, 당신이 뽑으신 백성과 함께 살 거룩한 산 당신의 손으로 영원히 세워 놓으신 지성소. 오 주님,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우리를 살게 하소서! 그리고 어느날 우리가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출애굽이 그곳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잊지 말게 하소서. 그곳은 아무도 단 한 사람의 피난민이 남아 있는 한 우리가 평화로이 잠들지 말게 하소서. 그러는 동안 우리의 목소리와 기운을 합쳐 세상의 모든 피난민과 함께, 모세와 함께 우리는 노래하렵니다. “하느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자 하느님께서 당신의 땅과 백성들에 자비를 베푸신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우리는 노래하렵니다. “당신의 주님, 우리의 옹호자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해방자, 우리의 하느님, 우리를 숨겨주시는 바위, 우리의 방패, 우리를 구해주시는 힘, 우리의 피난처이며 구원자이신 분”. 당신은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주님, 당신은 이제로부터 영원히 찬미를 받아 마땅하십니다. 아멘.

[출처] 참사람되어 1996년 11월호

[원출처] <하나되어> 1988년 8월(제19호)~1989년 6월(제28호)

나는 윌터스토프가 정의와 평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남아프리카와 팔레스타인의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구체적 행동에 이름을 올리듯, 한국의 기독교세계관운동이 한국의 국가폭희생자들의 기억을 자신의 작업 안에 통합시키고, 구체적 실천을 결과로 내놓는 것도 참된 통합적 세계관을 구성하고 살아가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개신교회가 회피나 왜곡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전달자로서 사회적 역진과 후진의 오명을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참고문헌】

- 임지현, 기억전쟁, Humanist(서울:2020)
 미로슬라브 볼프, 홍종락 역, 기억의 종말: 잊히지 않는 상처와 포용하다, IVP(서울:2016)
 ,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IVP(서울:2012)
 , 양혜원 역, 인간의 변영, IVP(서울:2017)
- 에드먼드 클라우니, 황영철 역, 교회, IVP(서울:1998)
 한스 쾅, 이홍근 역, 교회란 무엇인가?, 분도(왜관:1997)
- 존 스토트, 정옥배 역, 그리스도의 십자가, IVP(서울:1998)
 디트리히 분회퍼, 김순현 역, 옥중서신-저항과 복종, 복있는사람(서울:2018)
- 제임스 화이트, 김운용 역, 성례전 하나님의 자기주심의 선물, WPA(서울:2018)
 폴 맥파들런, 박남자 역, 구원의 성사-성찬적 교회론 입문, 성바오로(서울:1995)
 성염 역, 예수 그리스도 새 세계를 위해 떼어 나누어진 빵,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서울:1980)
 사랑의 성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